

# 한미동맹은 지속될 수 있는가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교 겸임교수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에서 유래한 한 오래된 속담에 의하면 진정한 사랑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국가간의 긴밀한 관계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아니 수십년 동안 한미동맹도 여러 난관을 겪었습니다. 한미관계의 역사로서 저는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물론 그들의 후임자들의 정권에서도 때때로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긴장과 충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정치적 수준에서의 의견 차이는 과거 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차이는 한미동맹 관계를 과거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더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점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우경화 되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좌경화 하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과거에도 이러한 경향이 증대되어 왔으나 미국이 우경화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미국인의 심리와 안보관에 극적인 충격을 준 2001년 9월 11일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에 대한 테러 공격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 하의 미국정책은 더욱 민족주의적이고 일

방주의적 노선을 택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국에서의 전환점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환영을 받았던 2000년 6월 13일이었고, 그것은 한국의 대중들과 정부의 견해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갑자기 북한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층에 의해 더 이상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들은 북한의 강함보다는 약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여름 1주일간의 한국 방문기간 중 제가 과거에는 거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한 여러 차례의 만남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의 대학생들과 만남과 한 차례의 젊은 언론인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그들이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북한은 적보다는 친구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한 신입생은 북한을 먼 친척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학생은 “북한이 친척인 것은 알고 있으나 큰 일가모임에서 북한은 기피대상이며 ...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그들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먼(distant)”이라는 용어가 비무장지대 바로 건너 쪽에 있는 경쟁국가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잘 묘사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한미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북한이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믿음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을 결속시키는 힘이며, 한국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한국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믿는 것처럼 만약 북한이 더 이상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면 수만의 미군과 그들의 작전, 행정기지가 한국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미군이 중요한 보호막이 되기보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라면 미군 전차에 깔려 두 명의 한국 여중생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과 사고를 낸 미군 병사의 석방이 난폭한 감정적 시위를 촉발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01년 3월 북한과의 협상에 미국이 즉시 복귀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성급한 백악관 방문에서 2000년 6월 13일의 방북 정신은 새로 막 출범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과 날카롭게 충돌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공

식적 비공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북한 지도자와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단호한 어조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심지어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중단했던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견지했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런 입장을 부인하기 위해 두 정상이 회담하고 있던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의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닌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 한다는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새로운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그것은 지난 행정부 얘기다. 현 행정부는 정권 교체를 추구하고 있다”고 대답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들의 정권교체를 추진하려던 충동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미국은 비록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정치적, 경제적, 인적 손실의 대가를 지불했지만,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을 축출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통해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내부로부터의 정권 교체를 하려고 기대했으나 이 기대는 무산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초기부터 압박만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압박과 외교적 방법을 병행하여 북한의 핵 프로그램만을 종식시키자는 다소 제한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첫 번째 4년의 임기 동안에는 양 진영의 충돌로 인해 비생산적인 교착상태만 초래되었습니다. 부시 행정부 내의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다자 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현실적인 제안이나 진지한 양자 접촉 같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들어와서 다른 몇몇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에 대한 중간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지원으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 협상 파트너와 광범위한 양자 접촉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힐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 미래의 북한 경수로와 관련된 예비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회담을 앞두고 힐 차관보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는 불확실하

지만, 제 견해로는 한때 회자되었던 예비회담을 위한 힐 차관보의 방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에 아직 불명확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들의 야심적인 초기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종종 노선수정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이라크에서의 끊이지 않는 폭동, 미국 걸프만 지역을 강타한 자연재해, 치솟는 유가 및 기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로 인한 대통령의 인기하락으로 인해 심대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정권 교체 시도로 인한 또 다른 국제적 위기는 가장 매력 없는 전망이 될 것입니다.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정책사안들을 다루는 사람들의 교체입니다. 콘돌라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그녀의 전임자였던 콜린 파월 보다 부시 대통령에게 더 가깝고 더 신뢰받는 조언자입니다. 게다가 힐 차관보는 차관보로 임명되기 전 미국의 협상 대표자는 그의 전임자였던 짐 켈리처럼 심각한 제약에 얽매어서는 안되며, 협상 파트너와 주고 받는 협상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그의 견해를 명확히 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제에서 차관보로 기용되었습니다.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6자회담을 성공하게 만들었던 회담 참가국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증대하는 결의입니다. 한국은 과거보다 이번 6자회담에서 더 큰 주도권을 보여줬으며,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참가국들 간의 예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최국으로서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이들 국가와 함께 일본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 용인은 동북아시아에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교적 방법을 통해 저지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김정일이 정동영 장관에게 한 말들은 그러한 희망에 무게를 실어주었으며, 처음으로 핵문제를 남북한 외교의 주제로 채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sup>1)</sup>

---

1) 지난 6월 17일 김정일은 정동영 장관에게 만약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김일성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를 인정한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더욱이 김정일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NPT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일과 정동영 장관의 대화는 핵문제에 대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돌파구가 되었다.

한편 변화는 미국의 정책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적인 386세대가 주도하는 가운데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무장한 젊은 유권자들을 동력화함으로써 2002년 12월의 대선에서 국정운영의 경험의 거의 없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02년 7월 29일에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의 노무현씨를 만나본 몇 명 안되는 미국인사로서 그를 만났습니다. 당시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그와 새천년민주당 당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당시 급하게 기록된 저의 메모에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선택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노무현 후보에게 국제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그는 “아시아는 어떤 일개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에 덧붙여 “결정은 ‘미국 또는 중국의 독단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되며 세력균형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노후보가 ‘세력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 놀랐고, 비록 그가 한국을 균형자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미국과 어떻게 공조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는 “한국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미관계도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젊은 세대는 강한 자부심과 불평등에 대해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불평등 상태를 개선하려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지자, 그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일본, 독일과 비교해 볼 때 불공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희망하는 한미관계와 젊은이들이 원하는 한미관계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젊은이들이 감정적이라면 자신은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지적돼야 할 것은 노무현 후보와의 대담은 두 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뒤 6주 후에 있었지만 사망사건에 관련된 미군 병사들이 무죄로 석방됨으로써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문제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남한은 북한의 붕괴를 조장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도 없으

며 북한의 붕괴에 대처할 능력도 없지만, 북한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노무현 후보는 기본적인 원칙은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노무현 후보와의 대담 후 거의 1년이 지날 때까지도 위에서 언급된 국가들이 모두 6자회담 참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저는 비록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의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세력을 승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비록 미국의 정권들이 선호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데 두 번이나 미국에 큰 빚을 졌습니다. 한 번은 1973년 8월 일본에서 박정희 정권하의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을 때 구출해 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 후반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의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또는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그를 감형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할 때입니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는 사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카터 행정부와 새로 취임을 앞둔 레이건 행정부가 김대중을 살기 위해 협력했던 독특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2년 김대중은 3년간 추방되어 대부분을 워싱턴 교외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생활했으며, 저는 거기에서 그를 수차례 만났었습니다. 당시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적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김대중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의 전임자들보다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는 친미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미국과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모르는 대부분의 미국의 관료나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가 당선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일부 발언 내용과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기용하는 그의 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정부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속적인 한미관계를 주장해 온 중진 정치인들이 밀려난 자리에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대항시키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사회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

이 걸렸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한국의 인구분포와 정책변화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심지어 공감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한국이 지난 반 세기 동안 한미 양국을 결속시켜온 유대에서 떠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군 출신을 포함한 30여명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이런 분위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아닌 대북한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었으나 U자 모양의 테이블 주변에서의 토론은 대부분 한국의 입장에 대한 우려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참석자 중의 몇몇은 한미동맹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미국에서 큰 공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다행스럽습니다. 여중생들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촛불시위와 성조기 소각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극적인 발언들과 사건들은 미국 언론에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인천에 있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위마저도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 전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른 이슈들로 인해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이러한 충돌의 장점 또는 결과에 대해 판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의 견해로는 한국정치의 방향은 차기 대통령 선거 또는 아마도 차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판가름 날 것으로 봅니다.

남북한 모두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는 매우 불확실 합니다.

북한 정권의 전체주의적 속성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 북한은 11년 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김정일은 김일성이 집권 후반에 수십년 동안 행사했던 것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여러 징후들이 있습니다. 김정일은 좀 더 느슨하고 분산된 권력구조의 우두머리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는 노동당을 대신하여 여러 사안에 대해 정책형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외부에서는 과거 노동당의 활동과 인물들만큼 국방

위원회의 활동과 인사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관료들은 지난 3년 동안 시장경제를 통하여 빈사상태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있어 국가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습니다. 부패는 점점 증대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필연적으로 외부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지만, 외부세계에 대해 지금 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지도자들이 시도할지라도 21세기에는 철저하게 닫혀진 ‘은둔의 왕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85%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외국으로부터 입국한 원조활동가들에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외국의 원조활동가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김일성 대학의 학생들과 수시로 접촉을 가졌던 한 인사는 최근 저에게 평생 동안 세뇌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 그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학생들 사이에는 경영학 공부에 대한 욕망이 큰 데, 그것은 엘리트들의 자제들이 그들의 미래를 이 분야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관계의 중심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비극적인 과오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생존은 외부세계와의 안정적 경제 교류에 달려있습니다. 올해 초 북한이 스스로 “완전한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입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큰 장애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제한적이고 신중히 선택된 대상을 상대 할지라도 한국의 점증하는 대북한 경제지원에 북한이 이 가공할 만한 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가 비핵화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편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현재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과거 보다 윤택해졌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안정되었거나 부유해진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10위 혹은 12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지만, 가까이 있는 보다 거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중국, 일본, 그리고 멀리 있는 미국이나 EU와 경쟁할 위치는 아닙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정치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한국을 에

워싸 온 주변 강대국들에 비교해서 볼 때 아직도 왜소합니다. 중진국인 한국의 국민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선택 중 하나는 현재 균열을 보이며 쇠퇴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양국의 국민과 지도자층 차원 모두에서 오랜 동안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한미동맹을 살려가고 있는 것은 서로를 잘 알고 아직도 협력의 의지가 있는 양국의 외교 및 군사분야 실무 관료들입니다. 양국의 일부 고위층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6자회담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쌍무협상, 그리고 기타의 현안에 대해 잘 협력해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미동맹이 곤경에 처해 있으나 한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회상해 보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의 한국은 제가 젊은 포병 소위로 전쟁을 종식시킨 휴전협정이 서명된 지 2주 후인 1953년 8월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보충대로 가는 군용열차를 타고 보았던 한국과는 천양지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보관하고 있는 형짚 표지의 제 작은 일기장에는 “부산에서의 첫인상은 비참하고 애처롭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본 어린이들 중 가장 더러운 어린이들이 기차 주위의 헌병의 눈을 피해 미군병사에게 구걸하고 있다. 한쪽 다리가 잘린 한 소년이 기차 주변을 기어다닌다. 소년은 자신을 지나쳐 가는 헌병 지프차를 향해 돌을 던졌다.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몇몇 소년들은 기차를 향해 돌을 던졌다.”

“우리가 부산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철길을 따라 있는 믿을 수 없이 초라한 누옥들을 보았고, 수백 혹은 수천의 사람들이 판잣집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전쟁으로 실항민이 된 사람들이며 그들 주변에는 비애와 적개심이 감돈다. 도시를 벗어나면 풍경이 괜찮았다. 한국 시골의 풍경은 산악지형으로 울퉁불퉁한 바위산 사이 작게 뻗은 골짜기에 마을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땅을 경작했고 진흙탕 웅덩이에서 몸을 씻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들판에서 웃음을 보냈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단지 자신의 생각에 골돌한 노인들만이 조용했다.”

3일 후 저는 배속받은 DMZ 근처의 보병 7사단 57 야전포병대대로 가는 길에 서울을 지나쳤습니다. “서울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파괴된 상태였다”, “우리는 트럭에서 피상적인 광경만을 볼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건물,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네 벽과 지붕을 갖춘 건물은 거의 없었다. 도로 한 쪽의 배수구 도랑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 편안한 동양적 방법으로 쪼그리고 앉아 흥정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도시는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시민들은 군인들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며 선도하는 헌병 짚차 뒤를 따라가는 우리를 거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전쟁의 참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저는 초고층 빌딩, 유선형의 기차들 그리고 지구상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집중된 곳 중 하나로 변영과 민주적인 국가가 된 한국의 서울을 바라보면서 1953년의 황폐했고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나라가 현재는 다른 세기의 다른 세상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민들과 한국 정치체제가 얼마나 먼 길을 얼마나 빨리 어떤 역경 속에서 달려왔는지를 되돌아 보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3년 세상에서 가장 비참했던 이 나라가 현재는 줄기세포 연구와 초고속 인터넷 접속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953년 1인당 평균소득이 100 달러로 근근히 연명하던 이 나라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20,000 달러에 육박하게 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부터 사반세기 이상 강압적인 군부 독재에 굴복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때로 다루기 힘들나 성공적인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랄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처음 군함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뒤 정확하게 반세기가 지난 2003년 8월에 신문에 기고한 바와 같이 한국은 아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대 초반 『워싱턴 포스트』의 동북아국장으로서, 20여 차례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후 워싱턴 포스트 외교 전문기자로 1993년 은퇴할 때까지 10여 차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은퇴하고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 25번째의 한국 방문이 됩니다. 또한 저는 수년에 걸쳐 북한을 3회 방문하여 고위 외교관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03년 8월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어 눈이 부신 인천공항으로 가면서 저는 일기장에 “한국은 부와 위상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성(生成)의 과정에 있는 나라다.

한국은 아직 불안정하며 이 나라의 운명과 한국민의 장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로의 방향전환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놀라운 당선 및 집권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새로운 것, 그리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남 갈등으로 남북 갈등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결속력은 과거보다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1953년 황폐와 빈곤에 짓눌렸던 곳으로서 처음 보았던 이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을 포함해서 매번 한국 방문하고 떠날 때 마다 고뇌에 찬 긴장감을 느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아직도 생성과정에 있는 성공적인 나라와 인연을 맺고 싶다면 한국은 나쁜 선택이 아니며 역사와 운명에 의해 선택되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과거와 현재의 한국에 대한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